

사순제 1주일

기도서 P. 248

제1독서(창 세	9, 8-15)
제2독서(베드 전	3, 18-22)
복 음(마 르	1, 12-15)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감 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문 정 현 신부

오늘은 사순 제1주일이다.

「빠스카」 축일을 지내기 위해서는 40일동안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며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이 사순절 동안은 교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고 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전의 기초가 그리스도이시며 성전에 있는 모든 돌(신자)들이 빛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빠스카」는 모든 전례의 중심이다. 우리는 「빠스카」를 생각하지 않고 사순절을 말할 수 없다.

사순절의 의미는 고행, 단식만이 아니다. 단식은 다만 투미한 우리 정신을 정화하고 오로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해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코 1, 15)” 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다.

우리는 가깝게 또는 멀리 하느님 말씀을 대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신뢰심을 갖고 말씀을 대하느냐가 문제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느님께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십자에서 부터의 삶의 변혁이다. 곧 회개(Metanoia)다. 이것은 작심삼심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회개는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는 모두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순 제1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는 하느님 말씀을 정녕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반성해야겠다. 우리의 눈을 팔고 있는 TV상자에 우리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는 어느때보다 이 기간동안 우리의 생활을 숙고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순시기는 하느님의 말씀에 맞들이고 삶에 옮기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나가는 시기요, 어두운 권세에서 광명의 나라로 치달는 시기이다.

<중앙 전주교회 주임신부>



왜 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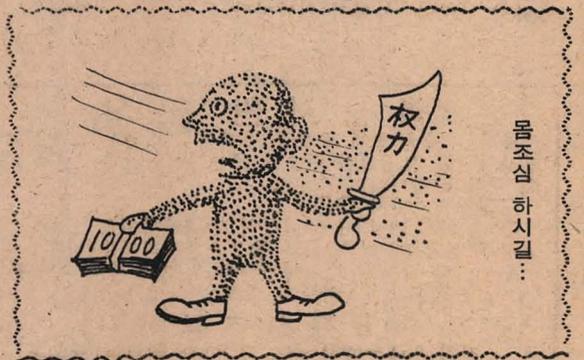
사순절이 되면 신자들은 나름대로 무언가를 결심하고 새생활을 시작한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흔히 담배를 끊는다거나 술을 끊는다는 결심을 한다. 그외에도 좋은 뜻을 세우고 착히 살아가기에 무척 애를 쓴다. 생활을 하나의 리듬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1년중에 사순절동안을 잡아서 거룩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골뎀병하게 카니발을 지내는 법칙을 보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진다.

<끊는다>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술을 끊기도 어렵지만 담배를 끊기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 노름을 끊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도 또 화투장을 가까이 하는게 사람이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즐기는 버릇을 끊기란 사실로 어렵다. 그런데 어느 종교에나 입교할 때에는 무언가를 끊도록 요구한다.

불가(佛家)에서는 세상의 여러 인연들을 끊도록 요구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 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 버리느냐」고 묻는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러저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자유자재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범인(凡人)들은 그러지 못하니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선택을 위해 어느 한쪽을 끊는 일은 필요하고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사순절을 보다 의의있게 지내겠다고 광란의 카니발을 지내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는 보도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 끊는가?”를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끊음은 무의미하다. 끊음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끊음 자체만은 별로다. 그 끊음을 통한 새로운 이어짐이 있어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제2의 그리스도를 키우자!

주 그리스도 수교수난의 사순절이 다시 시작됐다. 새 삶과 죽음의 「빠스카」 신비를 묵상하는 시기, 그래 어느 때 보다도 깊은 참회와 기도 속에 신앙을 다지며 자신을 일구어야 할 근신의 때이다.

그러나 이 봉제(封齋)시기를 맞을 때마다 또하나 절실하게 교회가 일깨워오는 오랜 관습은 성소(聖召)에 대한 관심과 후원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우리의 과제 중에 이보다 더한 책임도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성혈(聖血)로 이룩한 왕국, 이 교회를 위해 이제는 다시 생을 바쳐 투신할 오늘의 희생자, 성직·수도자들을 양성하고 후원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최고의 선업 아닐까?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뜻을 모아보자.

〈熙〉

—사제성소와 그리스찬의 사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 길은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다. 주님의 부르심, 즉 성소(聖召)는 어느 한 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결혼성소, 수도성소, 사제성소...등 여러가지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사제성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작년에 지낸 현금에도 많은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복음전파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다.

금년도 대신학교에 우리 교구에서는 7명이 지원하여 5명이 합격했다. 이같은 숫자로 어느 세월에도 방인사제로만 구성된 한국교회를 이룩하여, 농촌 산골 구석구석에서까지 매주일 미사성체에 참여할 수 있던 말인가?

몇년전 우리교구는 한해에 많은 수의 사제가 배출되어 많은 성당에 보좌신부들이 발령을 받았었다. 그런데 오늘의 실정은 어떠한가? 전부 철수하고 빈 방만 남아 있을 뿐이다. 구라파의 유서깊은 성당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공소화가 되어간다고 한다. 이 일은 불원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성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표명이다. 유능한 청소년을 신학교에 보내 사제로 양성시켜야 하며 또한 그들이 사제로 성장하기까지 끊임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명의 사제가 시루에 물만주면 저절로 크는 콩나물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외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팔마 나스떼파노 부제〉



은인을 구합니다

—「봉쇄 수녀원」에서 온 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께 사랑과, 기쁨의 문안드립니다.

저희 수도원은 지난해 8월 15일에 주님의 자애가 넘치신 안배로 전주교구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주교구청과 교우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헌신적인 도움으로 창설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로써 기쁨과 감사의 정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도생활에 안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수도회는 창설자이신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정신을 따라 철저한 가난의 생활을 영위하며 그날 그날을 주님의 안배하심에 신뢰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숨은 봉사 생활을 하는 관상수도회(봉쇄 수녀원)입니다.

한국에 창설되는 저희 수도원 건물이 그동안 독일 본원에서 거의 일년에 걸쳐, 전 독일의 은인들의 협조를 구하여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수도원 건물의 골조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공사를 계속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도원이 외국의 원조로 창설되기 보다는 고국에서 뜻있으신 분들의 회사와 형제적인 도움으로 수도원이 건립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 오랫동안 기도 중에 망서리다가 교구청의 후원을 받아 용기를 내어 너그러우신 교우님들의 협조를 기대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도원 건립을 위하여 기꺼이 회사하실 은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인들을 위하여서는 매일 단체와 개인기도를, 특별히 성체 흡수시간에 드리고 있으며, 이것을 저희의 중요한 본분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성교회와 우리 조국을 위해 주야로 성체현시와 영원한 흡수의 날들을 고대하면서 교우님들의 자애깊은 도움을 청합니다.

510-12 전북 익산군 팔봉면 월성리

성 클라라 봉쇄 수녀원

장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

생산사원 모집

당사는 서울 소재 수출품 봉제원구(인형) 제조회사로 생산사원을 모집코자 하오니 뜻이 있는 분은 아래 장소로 연락 바랍니다.

모집인원 : 여자 ○○명

자 격 : 18세 이상 여성이로 무경험자도 가능

전주 연락처 : 전주 전화 ②2836 최관수(시문)

※ 기술사 전원 수용하며 야간학교 취학이 가능함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619

여광물산주식회사

전화 854-6881~3 이사 최영식(바오로)

금·은·보석·시계

일성당

정음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판통)

남 베로니카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연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보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저거)

전주 남문연(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 ④4988

ECCLESIA

□ **성소의 요람 「복사단」 조직**

전주 주교좌 중앙성당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복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한다.

그리고 진동성당에서는 「사비오」라는 명칭으로 예전에 있던 복사단이 새롭게 조직되었다. 이회는 도미니코 사비오의 정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신앙을 일상생활 안에서 실천하고자 지향을 두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종교의 지식이나, 제율이나, 신심보다는 삶에서의 전면적인 봉사가 이상적인 신앙교육의 바램일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사제의 곁에서 제단의 봉사자로 활동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제 성소의 양성과 어린이들의 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 **군산지역 반 모임 박차**

지역 소공동체 육성은 82년도 교구 사목지침 목표중의 하나다.

군산지구의 둔율동, 오룡동, 월명동, 팔마 본당에서는 요즘 구역회의 만남과 반회합이 한창이다. 이들 모임에선 성서 말씀과 생활체험 나누기, 선교, 운영 등의 풍부한 대화로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케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크리스찬 공동체의 착실한 성장과 활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산 4개본당에 가득한 성원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 **교구 정평위 총회**

어느때 보다도 큰 관심과 참여속에 지난 20일 교구청에서는 교구 정평위 23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새로운 활동방향과 조직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숙의했다. 아울러 최근의 시국동향과 교회 안팎에서 일고 있는 각종 정보를 교환 분석하고 상임위에 적절한 대책과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결의했다.

□ **공소 지도자 연수회 개최**

기도하고 선교하는 사랑의 소 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 교육인 1차 연수회(1·2·3지역)가 지난 22일~25일 가톨릭 센터에서 40여명이 참가, 대단한 열의속에 진지하게 실시됐다. 「본당 공동체의 해」에 발맞춰 새롭게 기획된 공소대표자들을 위한 교구단위의 이 교육에 각 공소의 많은 관심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음 2차 연수는 3월 8일부터 다시 개최한다.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사진 작품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가톨릭 사진가 협회」에서는 제1회 가톨릭 사진 공모전을 서울 팽주 등에서 갖은바 있다.

이번에 본 사진가 협회의 협조로 전주교구에서도 4지구(전주시 8개본당) 주최로 다음과 같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많은 교우들의 참관을 바라마지 않는다.

일시 : 1982. 3. 5~8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요심이 (447) 김병오 



명화

초대받은 사람들

전주 중앙극장에서 3월 3일부터 상영 (2주간 예정)

(상영시간 : 오전 11시, 오후 1·3·5·7·9시)

- 한국 최고의 작품상을 받은 한국천주교의 대 순교사극!
 - 뜻깊은 사순절 맞아 값진 생 가다듬도록 모든 교우들의 빠짐없는 관람을 바랍니다
 - 「교우 우대권」 각본당에서 배부. 예비자, 친지들께도 많은 초대있기 바랍니다.
- (우대권 지참자 900원, 일반 2,000원)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진선미 꽃집

전주극장골목 전화②2628
범피도(덕배)·이 마리아

□ **개업**

코오롱 부띠끄

주 문정실(세시리아)
문철상(글러멘스)

군산시 영동 5번지
전화 ②6224

모 집 안 내

본 기관은 문교부가 인가한 속독법(速讀法) 보급기관으로서 본회 학창에 따라 지회장및 강사요원을 모집함.

1. 지회장: 각 시·군 2. 강사: 초급대 이상
3. 구비서류: 이력서, 졸업증명,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제출기간: 82. 3. 1~3. 6
5. 접수처: 당 사무실 ⑤5587(성모병원 3층 319호)
6. 본인 직접 래사 바람 ※ 접수된 서류 반환치 않음

사단 한국독서능력개발연구회 전북도지부
별인 지부장 조 윤 희(베드로)



1. 교구 수녀 연합회 성서연구 개강: 3월 1일부터<월> 오후 2시~4시, 노충동 천주교회(교육관)
3월 1일 임시총회 있음(진 분원 수녀 참석)
2.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3월 1일 오후 7시, 가톨릭센터(3층)
3. 제23대 4지구 중·고생 정기총회: 일시-3월 1일<월> 오후 4시 중앙성당, 참가금-700원 많은 참석바람
4. 성태수신부 귀국: 사목국 차장 성태수신부가 벨지움 루벵대학을 비롯 유학 연수를 마치고 2월 20일 귀국
5. 축! 영명: 오현택(가사미트) 신부 3월 4일 축하드립니다

(중양)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박
 사도 회장 박광문

- ※ 이주일 성경읽기
 이사야서 25장, 요나서 3장, 마태복음 5장~7장
1. 사순 제1주: 금요일의 날-사순절 동안 매주 금요일...
 2. 성요셉 성월: 나를 성당에 이끌어 주신분께 은혜를...
 3. 사도회 상임위원회: 3월 6일<토> 오후 7시
본당 신부님 사무실
 4. 방ziger 삽화: 주일 오후 2시 장당
 5. 성심부녀회: 3월 5일<금> 어머니 미사후 성당
 6. 조선교구 설립 150주년 기념사진 응모 당선작 전람회: 3월 5~8일, 가톨릭 센터 3층
 7. 고등학교생회 임시총회: 3월 14일<일> 9시 학생미사후 지도자 및 회원 전원 참석 바랍니다
 8. 중학생 회례: 매주<토> 오후 5시,
 9. 대학생회·신입회원 모집: 목요일 오후 6시, 박 신부님 방
 10. 어머니 성가대 모집: 부활 성가연습에 많은 참여를...
- 지난주 봉헌금: 598, 138원

(노충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철
 사도 회장 이홍재

1. 전주교구 수녀 연합회 베소라 성서 개강: 3월 1일 오후 2~4시 까지 (수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람)
 2.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상임위원 참석 바람)
 3. 베소라 성서 강의(일반)
2일<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까지
 4. 금주의 성서 읽기: 마태복음 전체
 5. 가정방문 일정:
2일<화>-남노충동, 3일<수>-충노 2가
4일<목>-인후 아파트, 5일<금>-인후동
 6. 주일학교 개학: 7일 오후 2시(부모님들의 협조바람)
 7. 예비자 교리 남자(박신부님): 매주<목> 오후 7시반
 8. 젠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젠미사-매주 일요일 학생미사
 9.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후
 10. 미수된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23, 198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현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복회 월례회의: 빠지지 마시고 참석 바람
 2. 부녀회 월례회의: 10시 미사후 성당에서
본당내 어머니들 꼭 우정의 모임에...
 3. 학생회(중·고) 일일 묵상회
28일 오후 부터 3월 1일까지(성가집·묵주·기도서)
 4.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11시-수녀님들, 캐벨리맷타씨넵
수요일 저녁 7시-보좌신부님들, 직장인 학생들
 5. 3월중 가정방문: 벽보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람
 6. 어린이 교리반: 가정의 귀염둥이 교리반으로...
일요일 오후 2시 교리, 3시 미사
 7. 금주전례: 해설-이철중, 독서-①이성환 ②유정순
차주전례: 해설-이서구, 독서-①나영규 ②강덕주
- 지난주 봉헌금: 482, 710원

(북자) 전화 ⑤25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3월은 성요셉 성월
2. 사도회: 오늘 저녁 미사후
3. 첫 철레 5: 3월 4일 저녁 7시 30분
4. 첫 철레 7: 3월 6일 저녁 7시 30분
4. 주일학교 개학: 28일 오후 2시 교리, 3시 어린이미사

5. 사순절 저금통: (정양비) 정성껏 봉헌합시다
 6. 가정방문 및 반회합
1일-화산동 1반 반회장-이인철, 반지도자-김화영
4일-화산동 2반 반회장-최정순, 반지도자-김재석
5일-대평동 1반 반회장-최소자, 반지도자-양동석
 7. 다음주 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천건 ②서순옥
- 지난주 봉헌금: 399, 2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활인구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중·고생 예비신자 교리: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공식미사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3. 주일학교 졸업식: 2월 27일<토>
 4. 퇴임교사: 박금주(유리안나)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5. 신입교사: 오경희(미카엘라)·유미정(엘리사벳)
회장-조훈(스테파노), 총무-유미정(엘리사벳)
 6.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후
 7. 가정방문
3월 2일(1반), 3일(2반), 4일(3반), 5일(4반)
 8.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김나섭 ②장기호
- 지난주 봉헌금: 245, 185원 교무금: 295, 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③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사도회 월례회: 3월 7일 공식미사 후
 2. 누갈다 부녀회: 3월 6일 오전 10시
 3. 후원회원 성가 연구: 매주<화> 오후 2시 30분
 4. 축! 꾸리아 탄생: 3월 7일 오후 2시
 5. 예비자 교리안나: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2시 30분, 밤 7시 30분
 6. 청년회 주체 체육대회: 2월 28일 혜성학교 교정
대학회·중공동 학생회·교리교사 합동으로...
 7. 미사 안내: 허운순·조금주·박봉자·정복주·임요안나
 8.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남상용·이종욱, 기도-김종환
- 지난주 봉헌금: 491, 300원

(전동) 전화 사무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업
 ③2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2시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다음주 8시 30분 미사후
 4. 구역회합: 매월 네째주 화요일(많은 교우 참석요망)
 5. 젊은이 피정: 3월 7일 오전 10시~오후 5시
 6. 사순절 매 금요일 저녁 미사후 십자가의 길 있음
 7. 사도회 임원: 3월 3일 감사시 전원 참석 요망
 8. 예수 부활 영세 예비자 예식
3월 6일 저녁 미사중 영세예비자 1단계 예식 있음
 9. 전동 청년 피정: 3월 7일 오전 9시, 센터
 10. 전례담당(다음주)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이헌재 ②김동연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이덕수 ②백종훈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정동희 ②장수철
- 지난주 봉헌금: 544, 11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활희상

1. 교리반 졸업식: 오늘 오후 3시 30분 미사후 있음
 2. 유아세례: 졸업후에 있습니다
 3. 사도회 조직에 부녀분과를 하나 삽입 합니다
분과위원장-이경순, 차장-김성자·송금자·한준정
이남순·유우희·신운순·소별희
 4. 꾸리아 회합과 사도회 상임위원회: 다음주에 있음
- 지난주 봉헌금: 174, 765원 교무금: 495, 000원